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 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23.7.21.(금) 14:00~15:00
- ▶ 장 소 : 서대문 구의회 제1회의실
- ▶ 참 석 자
 - 구의원 : 서○○ 서대문구의원, 주○○ 서대문구의원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 : 조○○(위원장), 이○○(부위원장), 김○○(위원), 김○○(위원), 김○○(위원), 조○○(위원), 김○○(위원)(불참)
 - 의회사무국 직원 및 관계자 : 권○○(의정팀장), 김○○(주무관), 문○○(주무관), 김○○(주무관), 송○○(주무관)
- ▶ 안 건
 1. 독일, 오스트리아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2. 일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조○○ 위원장 심사안내) 지금부터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에 출장 결과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심사위원회 성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의정팀장 심사안내)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부회사무국 의정팀장 권○○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구의원 국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에 대한 심사를 위해 참석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성원 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에는 재적인원 7분 중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서대문의회 구의원이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두 개의 팀을 구성하여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출장을 다녀온 후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드렸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OO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지금까지 의정팀장이 이번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은 유럽팀과 일본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팀별 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각 팀별 대표 의원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럽팀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본 팀이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럽팀으로부터 국외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독일 오스트리아 출장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라며 유럽팀 서호성 위원님은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럽(독일/오스트리아)팀 출장 결과 보고

(서OO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럽팀의 뭐 대표는 아니고요. 아무튼 같이 갔다 온 서OO입니다. 팀원 오늘 선배님들 위원님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오전에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 겸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거 하다 보니까, 한 30분 좀 더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여기서 하실 필요는 없겠고 또 보고서 위주로 짧막하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사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럽팀은 의원 5명이랑 직원 4명 이렇게 9명이 5월 20일부터 5월 28일 7박 9일간 출국장소인 부다페스트까지 이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한 1,500km 정도 이렇게 뭐 버스를 이용해서 다니기도 했는데 물론 버스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말하다 보니까, 좀 아쉽기도 했지만, 또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또 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공식 방문지와 기타 방문지가 있는데, 공식 방문지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이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데는 아무튼 저도 요번에 알았습니다마는 아무튼 환경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중에 보봉마을이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은 프라이부르크 중심지에서 보봉마을로 가는 트램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봉마을은 이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친환경적인 마을을 만든 모범사례로 뽑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었고요.

여기 덩굴로 이렇게 덮여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게 3층 건물로 여기가 호텔입니다. 덩굴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봄부터 자라서 여름 뜨거울 때는 다 덩굴로 덮이고 또 가을부터는 낙엽 쳐서 떨어져서 이제 해를 또 태양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하는 식으로 세심한 신경을 쓴 것 이고요. 여기가 이제 전차길인데 전차길도 원래 도로 깔잡아요. 근데 여기는 또 잔디를 깔았습니다.

그런 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다 열을 흡수하면서 대기온도를 낮추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봉마을은 이러한 결정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내린 결정이고요. 그래서 아재 이 건물 배치도 보면, 왼쪽에 건물 배치를 보면 이게 다 그냥 배치를 한 게 아니라, 물론 경관이라는 것도 고려를 했지만,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고 대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함으로써 대기질도 높이고 이런 어떤 그런 것을 감안해 두는 온 동네 자체가 다 이렇게 친환경적인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정책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뭐 개인 주차장은 아예 없는 거고. 공동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하는데 차를 자가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당연히 공동주차장 이용료랄까 그거를 면제해 주고 또 대중교통 그러니까 여기서

외부 시내로 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대중교통 이용권도 수시로 제공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친환경적인 자동차 줄이거나 이런 것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한국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정책들이 수십 년간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중요한 건 어떤 정책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그맣고 소박한 거지만 일관되게 장기간 처리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보봉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또 우리 의원들이 느낀 점이랄까 이걸 적어놨고요.

그 다음은 슈튜트가르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뭐 어떤 데냐면 공업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우리 한국으로 치면 울산 같은 공업도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대기질이 안 좋았던 그런 곳인데 근데 공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상당히 개선됐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원래 분지 형태랍니다. 그래서 공기가 잘 안 통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또 우리 여름 잘 아시는 잘 아시는 그 독일의 또 유명한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벤츠와 포르세 등의 자동차 회사가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울산 같은 도시인데 아무튼 그런데 여기가 의외로 자동차 안타기 같은 거 이런 걸 펼치고 있습니다.

대기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1938년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떤 녹색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또 1990년대쯤에부터 녹색당이 여기서 좀 많이 의석들을 차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도시지도를 보면 도시 한 가운데 U자 형태로 녹지가 형성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옛날 왕실의 어떤 정원이었답니다. 정원이었는데. 그거를 지켜낸 거죠. 2차세계대전 이후 그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도 독일이 지켜낸 겁니다.

독일 이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때 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땀감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정도 녹지는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 녹지를 지켜냈고 그리고 이제 1990년대 녹색당이 여기를 들어오면서부터 새롭게 또 녹지 구성 프로젝트를 했답니다. 그게 X자 프로젝트인데 시 예산으로 어떤 공동 주택이나 공장이나 폐공장 이런 데를 구입을 해가지고 일부러 녹지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U자가 이렇게 있고 또

X자로 녹지를 형성됐다. 이게 단 반드시 단순히 그냥 녹지가 많은 많다는 의미만 있는게 아니고 이게 바람길이 또 된다고 합니다.

대기순환길이 돼서 대기질이 자연스럽게 순환이 돼서 질이 개선되고 또 대기의 어떤 온도도 낮추는 어떤 그런 정책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13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그리고 또 자동차의 도시인데 놀랍게도 시내에 자동차 금지 구역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청에 이제 방문을 해야되는데, 한참 떨어져서 버스를 내린 다음에 또 걸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도 도시답지 않게 자동차를 홀대하는구나 하여튼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13 쪽에 보면, 이렇게 꽃시장 같은 것이 보입니다.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니까, 시내에 광장 같은 공간이 생기는데 이런 곳에서 일주일에 오전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역 로컬 농수산 농산물을 사고파는 이런 어떤 시장을 열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또 로컬푸드를 이용하니까 뭐 물류비가 물류비나 그에 따른 에너지도 절약하고 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쪽에 보면, 녹색당 시의원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튼 뭐 좋은 얘기인데 아까처럼 뭐 X자로 우리 띠 구성을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밌는 에피소드는 여기가 이제 사진이 그래도 밝게 나왔는데 우리가 들어왔는데 어두운 거예요. 사무실이 그래서 뒷사람들이 왜 불 켜는 걸 잊었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우리 쪽 하다가 나중에 어떤 호기심 많은 우리 의원님이 그런데 왜 불을 안 켜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이 질문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요 지금 우리는 이 정도면 원래 안 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게 어떤 저는 사회적으로 여기는 이런 어떤 에너지 절약과 이런 친환경적인 것이 아주 그냥 일상화돼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어떤 X자형 어떤 녹지 조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의원들이 잘 설명을 한 거고.

또 제가 하나 질문한 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단체장만 바뀌고 그러면 획 바뀐다. 여기서는 이런 정책이 수십 년간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느냐 그랬더니, 또 여기도 잠깐 좀 이 질문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시장하고 시의회는 동등한 관계고 시의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시장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획 바뀐다고 그러는 거 없다.

특히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제대로 된 정책기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 주민들 또 전문가들이 권한과 책임을 다 갖고 있으면서 정말 신중하게 정책을 오랜 기간 숙의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된 결정은 정치인이 단체장이 함부로 못 바꾸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뭐 녹색 정책도 들었지만, 이런 정치풍토를 서대문구에도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까 요런 고민도 좀 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쪽 뭐 질의 답변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의 소감서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로젠하임시 쓰레기소각장, 열병합발전소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좀 쓰레기소각장하면 우리 걱정되잖아요.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이 소각장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인구 6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또 이 발전소를 시가 직접운영을 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일단 거기 옆에 우리가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건물을 먼저 한 바퀴 돌아봤는데 악취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뭐 별 반감이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근데 또 문을 열고 건물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외부로는 철저하게 격리가 돼 있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악취뿐만 아니라 쓰레기소각장 하면 좀 뭔가 좀 걱정되잖아요. 안 좋은 물질 뭐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데 이 주민들하고 어떻게 같이 잘 여기서 지내고 있을까?

담당자 말로는 64년 열병합발전소로 시작한 이유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전에 철저하다라는 믿음을 심어줬다는 것인데, 이 회사가 이 도시에서 500명 정도를 고용한다고 합니다. 평균연봉도 1억 원이 돼요.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인 거죠. 그리고 그 가족까지 뭐 생각하면 그래도 3~4천 명이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친구들 지인들 하면 이 시에서 이 소각장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형성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여기 도시 한가운데 이런 어떤 쓰레기 소각장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 물론 안전이 기본 밑바탕이 되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사실 이런 어떤 쓰레기소각장이 열병합발전소는 사실 도심에 있어야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나 열에너지 같은 거를 또 옆에 있는 공장이나 가정집에 쓸 수 있기에 사실은 또 바람직한 형태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도입될지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지 어떤 이런 어떤 고민이 또 되는 그런 방문지였습니다.

이제 34쪽의 찰츠부르크의 막스글란 재활용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8000 평방미터 되는 공간인데 이게 오스트리아거든요. 오스트리아 이제 재활용센터인데 여기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150명 정도입니다. 시가 또 직영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서 그 시의 한 절반 정도의 어떤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또 처리한다고 합니다.

70명 정도는 이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오스트리아도 사실 그렇게 재활용에 대해서 신경 쓴 게 오래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90년대만 해도 플라스틱이 기하급수로 늘어났잖아요. 외국에서는 모든 쓰레기를 몽땅 합쳐서 한 곳에 집어넣고 그냥 매립해버리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래서는 안 되겠다해서 규제를 아주 강화시키면서 이 재활용 정책을 펴고 있는 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사정상 좀 약간 적용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서대문구는 이런 넓은 부지를 마련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은평자원회수시설을 은평구와 같이 사용하게 될 것이니까, 이후에 이 재활용센터의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용할 거가 없나 좀 살펴봐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뭐 우리도 이제 재활용센터가 있잖아요.

재활용센터가 뭐냐 하면, 그 우리 구가 위탁 운영해서 재활용센터에서 중고물품 판매하고 수거하고 판매하는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좀 어떻게 운영을 개선해서 좀 더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이제 거점별로 재활용 거점 수거 정책을 좀 더 강화한다면, 재활용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재활용센터에 방문했습니다. 네 공식 방문지 설명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기타 방문지는 우리 보고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램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서대문구는 지금 안산이라는 게 가운데 딱 있어서 각 권역별로 완전히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산 순환 교통 대중교통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 트램 전차를 도입할 수 있을까? 뭐 하여튼 요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고요. 이게 트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안산을 둘러서 순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대중교통을 마련하면 될

가 자가용 이용률이 좀 줄어 들고 좀 더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러는 해외연수 출장이었습니다.

아까는 이거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 거라서 사족인데 아까 주민들한테 주민 설명회 때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의원 일 인당 의원 일 인당 해외연수 출장비가 350만 원이다.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은 400만 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5,000만원 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구구정에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감사 이거 인제 이 해외연수 출장 보고에 와 주셔서 감사드리긴 한데 사실은 이 해외 출장 해외 연수 출장은 우리 구의회가 하는 일의 극히 일부분이다.

예를 들면, 우리 서대문구의 결산 기준으로 재정 규모가 9,100억 원인데 우리 의원 1인당 한 600억 원의 예산을 감시하고 그러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함으로써 예산이 공정하게 투입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행정이 잘 집행하게 되고 있나 혹시 실수하는 거 없나 혹은 진짜 잘못 비리 혹은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건 없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또 예산승인을 통해서 불필요한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깎고 이제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확정하도록 하는 게 우리 구의회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 공무국외출장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지만 그리고 감사드리지만 또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원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긴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말씀은 굳이 위원님들께 안 드려도 되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서OO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독일오스트리아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장 결과 보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OO위원1)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저희하고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더 수정될 부분을 좀 수정하시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보고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저기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고 이제 뭐냐 하면은 갔다 오시고 나름대로 이게 정책으로 좀 이어졌으

면 좋겠다. 지금 의원님 머릿속에 있는 트램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좀 성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부분에 대한 거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제 이 뒷 부분에 어떤 것을 정책으로 좀 접목시키겠다라는 게 좀 나왔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좀 이렇게 보면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을 그냥 누가 질의했는지 이러면 모르거든요. 여기에 조금 더 주민들한테 더 확실하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 의원 질의에 누구 답변 요런 부분이 조금 돼 있었으면 더 신뢰성이 훨씬 더 좋아서 다음번에 국외 출장을 갔을 때는 주민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열려 갔다 오시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00위원1)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하나 개인적으로 좀 이번 기회에 하나 궁금합니다. 이렇게 좋은 데 가는데 우리 위원님 쫓아서 그래도 수행하는 우리 공무원 환경에서 환경과고 환경과 이런 분들은 한 분이라도 가셨나요?

(서00 의원) 아닙니다.

(김00위원1)

그래서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지금 이런 좋은 데 갈 때 환경과하고 전문직이 같이 가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의논할 수 있고 이런 걸했으면 더 귀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행정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정책을 할 때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진행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00 의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00위원)

저도 우리 김애미 위원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뭐 갔다 와서 이제 얼마 안 된 요 시간에 무슨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시간적 제한도 있고 또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이 결과를 내

놓기는 사실은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램이 있다면은 그 우리 이 심의 위원회에서 연말쯤 한번 시간을 더 갖고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신 이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인 어떤 정책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을 한번 좀 입안을 해서 그걸 한번 좀 그런 걸 한번 심의하는 시간이 한 번 더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이미 금방 다녀와서 정책을 만들어서 내놓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한 연말쯤 시간을 갖고 공무국외출장에서 보고 온 것을 우리 서대문구에 접목하여 추진하고 싶은 정책 그거를 좀 내놓고 그걸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하고 또 집행부와 논의해가면서 그걸 현실화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하고, 위원장님께 지금 제가 한번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OO위원2)

아주 보고서 너무 처음 봤는데 아주 잘 정리하셔서 너무 애쓰면서 잘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인제 이 두 번째로, 이 그러니까 국외 출장 가신 거를 두 번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관심사가 두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이제 친환경 쪽 이라는 뭐 지금 이것도 다 큰 카테고리 안에서 친환경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겠지만, 한쪽은 뭔가 그쪽에 이제 뭐, 뭐 이 보봉마을같이 뭐 이런 인제 뭐 패시브하우스를 만든다던가 이런 에너지 전략 이런 쪽이라면 또 다른 한쪽은 이제 재활용이나 뭐 그 열병합발전소 이런 쪽으로 이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쪽에 두 개의 관심으로 이제 모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트램 만들고 이런 그림 같은 거를 그냥 그냥 뭐 내가 이런 얘기 했으니까. 뭐 사람들이 뭐 황당한 무슨 뭐 그림이나 그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런 플랜을 좀 세워서 가지고. 실제로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제 정책도 만들고 이렇게 한 프로젝트로 이렇게 만들으셔서 아까도 그 독일 같은데, 가서 부러우신 게 장기적으로 정책을 계속 몰고 나가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뭘 해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어떤 그런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동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심어나가면 조직도 사실은 학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안에 그런 이제 DNA가 쪽 흐르도록 이렇게 좀 계속해 이 프로젝트를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외 출장 가실 때

마다 이렇게 뭔가 돈이나 쓰러 다니는 거 사람처럼 보일까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런 프로젝트에 딱 맞는 어떤 다른 장소 그런 데를 좀 더 찾아가서 거기에 생기는 문제들 뭐 열병합발전소 문제도 우리나라도 인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실제로 제가 좀 지나가면서 그냥 라디오에서 제가 들었는데 곁은 여기 보신 것처럼 주변은 너무 다 시민들이 살고 있어요. 제대로 그런데 아까 문 열고 들어가면 냄새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에 들어가서 이제 24시간 동안 인제 뭐 교대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실제로 정말 겹보기만 그런 건지 속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깊이 이제 스터디를 하셔서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하려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 나가시면 훨씬 이걸 죽이지 않고 1회성으로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이 쓰레기 수거 처리 이게 두 가지로 되잖아요. 하나는 재활용 축이고 또 하나는 에너지 생산 쪽이요. 그래서 두 개의 축을 어떻게 이제 서대문과 뭐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들으니깐, 은평 거기 처리장 하면 연결이 되어 있다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좀 더 발전시키시는 그런 것도 되게 괜찮을까요?

(김00위원3)

유럽에 특히 이제 독일이 이제 전 세계에서 검소하고 전략이 아주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 한 분 말씀하신 우리 지금 의회만이라도 굳이 밝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불 한번 꺼보세요. 불 한번 꺼봐요.

지금 하나로 돼 있는지 또 모르겠어요. 하나만 켜봐요. 또 한 번 켜봐요. 조도를 낮추면 전기량이 엄청 감소 됩니다. 그때 다 올리고 불 끄고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배운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배워요 아까도 그러면 말씀하셨지만, 전쟁하면서 여러 사이에서 가스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후로 더 심해졌다. 이거야. 더 절약하고 겨울에는 정말 옷 입고 지내지 그래서 우리 한국도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절약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런걸 보고 느꼈는 것만이라도 한 공부 된 거예요.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갔다 오신 분만이라도 해서 구청이나 의회나 각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만 해도 큰 수확을 얻으신 거죠.

(위원장)

네 보고서 잘 봤고요. 좀 아쉬운 게 있으면 지금 시민들한테 이미 공개하셨죠. 좀 절차를 우리 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그 이후에 공개하는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료들을 보면은 쪽 서술식으로 어디 갔고 어디 갔고 어디 갔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 보봉마을 우리는 어느 동네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게 이런 곳이구나 면적이 얼마 되고 인구 얼마 되고 좀 그런 정보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것은 의원들이 이 소감을 쓰는데 예를 들어, 박경희 의원님 이용준 의원님 같이 남자를 꼭 붙여야 되는지 그렇죠.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자료인데 남자를 아마 직원들이 쓰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회도 이런 보고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참조해 가지고 좀 이왕 만드는 보고서라면 좀 더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OO위원)

저기 이 보고서가 매년 갔다 온 것이 저장이 돼 있나요? 보관이 돼 있나요? (네) 하여튼 뭐 나중에라도 내년부터 가실 때는 그동안 의원들 갔다 온 참고로 해서 더 발전시키기로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독일 오스트리아 공모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심사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위원일동)

없습니다.

2. 일본팀 출장 결과 보고

(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본 오사카 도쿄 일대를 다녀왔는데요. 정확하게 오사카는 아니고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세 군데에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신칸센으로 도쿄까지 이동해서 도쿄에서 두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1일차 방문한 기관은 탄포포의집, 하나아트센터입니다. 나라현 작은 마을에 있는

일종의 장애인 종합복지시설인데, 이곳은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든 곳입니다. 단순히 예술작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나아가, 모든 작품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디자인으로 굿즈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 저작권 비즈니스를 활발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관 자체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저작권 비즈니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등록된 장애예술인에게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디자인에 대한 판권으로 100%의 수익이 있다면, 그 작품의 작가에게 30%를, 나머지 70%는 등록된 다른 장애예술인에게 매달 15~20만원 가량의 비용으로 분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소소한 월급 기본급 개념으로 말이지요.

탄포포의 집은 1973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모임에서 시작되어 50년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는 곳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 돌봄과 예술을 접목한 ‘장애인 예술 운동’의 중심점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탄포포는 우리 말로 민들레라는 뜻인데, 민들레가 바람에 날려 씨를 날리듯, 이 센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자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같은 장애예술인을 기관에 등록하려면 특정한 기준이나 선발과정이 있는지 여부였는데, 센터장은 “특정 기준이나 과정은 없고, 누구든지 센터에서 예술활동을 할 의지만 있다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며, 제가 그간 경쟁에 너무 찌들어 살았나 싶었고, 진입장벽을 낮출수록 다양한 가능성이 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의 계기가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20년 12월부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최근엔 문체부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해 3%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에 비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예술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지원 사업 예시가 있다면, 우리 구 장애인 직업교육 사업이 대체로 바리스타 또는 제과제빵 중심인데, 문화예술 영역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서대문구에서 조성하는 시설이나 각종 굿즈 제작 시 장애예술인 디자인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일 차에 방문한 곳은 카미카츠 마을입니다. 이곳은 2003년 일본 내에서 최초로 폐기물 제로, 즉, ‘제로웨이스트’를 선언했고, 심지어는 마을 내 발생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비율이 81%에 달하는 곳입니다. 국내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을 장려하는 다양한 활동과 정책이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우리 의원들은 이 마을에서 대안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1999년도까지만 해도 각자 마당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다, 2000년에 마을

내 공공 소각장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2년 후 다이옥신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소각장을 폐쇄하게 되었고, 기준에 맞는 소각장을 건설할 돈이 없어 차라리 재활용을 하자는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카미카츠 마을의 <제로 웨이스트 센터>는 마을 내에서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겠다는 창문이나 문 등의 폐자재를 이용하여 건축하게 되었고, 이곳이 만들어진 이후 더 이상 마을 내엔 쓰레기 수거차가 돌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와서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는 것이죠. 처음엔 9가지로 구분하여 분리했지만, 재활용품 수거 업체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그 품목의 가짓수도 늘어나 20년이 지난 현재는 45가지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카미카츠 마을이 제로웨이스트를 선도하는 데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는데요. 처음엔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재활용품의 가치를 매기는 것을 하다보니 많은 주민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1kg 모으면 얼마의 판매수익이 되는지, 반대로 폐기해야 하는 품목을 1kg 버리면 얼마나 폐기비용이 드는지 분리배출 하는 곳에 작성을 해놓는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포인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포인트제도는 이같이 분리배출하여 얻은 포인트로 쓰레기를 덜 발생시키는 생활용품으로 교환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300포인트를 모으면 세라믹으로 된 커피필터로 교환을 해주는 데, 이를 통해 일회용 종이필터 사용을 줄일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한 인센티브 제도는 해외와 우리나라 내에서도 다채롭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 지자체인 마포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중간 처리시설로 ‘소각제로가게’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재활용품 배출한 뒤 포인트로 ‘제로페이’를 활용하기로 했다 합니다. 은평구는 그린모아모아 사업을 통해 분리배출 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공해주는 형태인데요.

우리 구의 경우 천연동에 분리배출하는 장소의 골목관리소 3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특별히 인센티브제를 활용하진 않고 있진 않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 다양한 분리배출을 하는 카미카츠 사례를 통해 우리 구에서 반영할 것들이 여러분 눈에도 보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3일 차에는 나기정 마을이란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문하여 더 유명해진 곳으로, 출산율이 크게 늘어 기적의 마을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 서울은 그중에도 가장 낮은 0.59명인 만큼 우리 의원들에게도 저출산 정책은 큰 관심사였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나기정 마을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이곳에 방문해서는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여타 다양한 사업들은 사실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경제적 지원 사업의 차이점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나기정 마을의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주거와 일자리에 있었습니다. 특히 ‘일거리 편의점’사업은 우리 의원들에게 꽤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아이를 낳아야 하는 세대는 부부 모두 일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고,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일거리 편의점 사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단시간 동안이라도 일할 거리를 지자체가 중개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인데요. 사전에 이 사업에 참여자로 등록된 사람들, 마을 주민 약 300명 안되는 사람들에게 단기 일자리가 나오면 정보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잠깐의 알바이기도, 반나절을 사용하기도 하겠지만, 해당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인 면도 챙기고, 경력을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나기정에서는 보육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단시간 보육, 주민들의 공동육아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니 2.95명의 출산율을 기록하나 싶었는데요.

서울형 키즈카페 정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시간제 보육, 공동육아 등의 정책사업을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인구 규모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 많은 시설과 보육 정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서대문구는 안산을 가운데 두고 권역별로 생활환경이 나뉘지는 만큼, 권역별로 보육환경을 다채롭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나기정 마을의 저출산 정책의 모토가 있더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인구정책이기도 하지만 일자리 정책이요, 나아가 최고의 노인복지 정책이기도 하다”고 말이죠. 초고령사회 속 노인을 떠받칠 수 있는 미래세대를 만들어 우리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4일과 5일차는 도쿄 일정이었습니다. 4일차엔 간다천 환상 7호선 지하 조정지를 다녀왔는데요. 최근 갑작스러운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일본에는 수도권 지역의 수해방지를 위해 지하조정지가 곳곳에 조성되었는데요. 우리가 간 곳은 54만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저수시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조성해 놓고도 걱정되는 것이 있는가?”라는 제 질문에, 이만큼의 물을 모으는 것보다 더 많이 비가 오는 것 외엔 걱정하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설명해주시는 담당 공무원에게서 시설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다만 저수로 내 작은 균열의 변화를 꾸준히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다천은 도쿄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하천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더 좁은 폭이었는데, 주거지 수해 피해가 막심했다 합니다. 그래서 하천 폭을 넓히고 지하 조정지를 조성한 것이라는데요. 우리 서대문에 비교하면, 홍제천이 생각나실 겁니다. 홍제천도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모이는 곳인데, 집중호우가 내릴 때 가끔씩 주거지 침수피해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이번처럼 강한 비가 더 잦아질 것인데, 그만큼 우리 구도 수해 피해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난 30여년의 기후만 생각할 것이 아닌 더 강한 피해를 대비하여 우리도 다양한 방재대책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5일차엔 도쿄 임해 광역 방재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 가게 된 계기는 방재시스템에 대한 체험교육을 일본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우기 위함이었는데요. 이곳의 안전체험교육은 지진 발생 후 72시간 동안의 생존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습 위주였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지진이 발생하면 교통이 마비되어 구조활동이 시작될 때까지 약 3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이라합니다. 즉, 최소 3일은 다른 도움 없이 스스로 버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 의원들은 각자 태블릿을 들고 학습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어떤 상황을 설정한 것이 보이시죠? 각 세트장 마다 어느 구간에 가서 상황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한 퀴즈를 풀기도 했고, 주변 벤치를 활용한 생존방법을 가르쳐 주는 등 꽤 현실적인 내용 위주였습니다. 일본은 다이소 같은 100엔샵에서 방재물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체험시설을 나왔을 때도 수년을 견디는 식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방재물품들을 전시하거나 판매하기도 하더군요. 그정도로 재난을 대하는 일본 시민의식이 특별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 의원들이 이 5일차 기관방문을 마치고 나리타 공항에서 귀국 비행기를 기다릴 때, 도쿄 인근 지바현 앞바다에서 진도 6.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약 진도 3 정도의 흔들림이었다고 하는데, 일본인들은 고정된 무언가를 잡고 대처하는 반면,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멀뚱멀뚱 이 상황이 뭔지 놀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비 빼고 일본에서 모든 걸 경험하게 된 셈이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경험한 건 서울시의 오발송 된 재난문자였습니다. 그때 모든 서울시민은 재난 발생 시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을 텐데요. 저는 이미 일본에서 지진까지 겪으니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체험시설은 정부와 도쿄도가 운영하는 시설이었는데, 저는 지자체마다 소규모 체험시설이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담당자는 지자체마다 있긴 한데 소규모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소화기 사용법이나 동영상 등의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

실 서울 내에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큰 규모의 안전체험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체험시설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직간접적으로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생존 대책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장려해야한다고 봅니다. 2천만원 규모의 사업에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재난안전교육 사업 확대를 서대문구정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효용성도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기타 착안사안들입니다. 저희 일본팀은 공식 기관방문 전후로 주변 마을을 걸어다니며 편의점도 다녀보고 재래시장도 다녀와 보았습니다. 모든 대중교통버스가 저상버스라는 점에선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앞으로 버스 교체는 모두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경우 마을버스도 신속하게 교체하는 정책을 고민해보면 좋겠다 싶었고요. 깨끗한 도시관리 속, 서울 도심과 비슷하지만 생각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점 등이 보였는데, 주정차 관리가 법 제도를 통해 워낙 잘 되어있는 나라다 보니 자전거 활용도 잘 되는 것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도보로 지역을 둘러보기도, 신칸센으로 이동도 해보고, 도쿄 내에선 지하철을 타며 이동해보며 최대한 일본을 경험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방문기관에서 모든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제공해주었고, 버스가 떠날 때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을 해주었는데, 일본 특유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1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한테 보고하시기 전에 먼저 저희하고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했으면 더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결과 보고서에 누가 질의했는지가 정확히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고서를 쭉 봤는데 이경선 의원님께서 쓰신 부분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각각 의원님들이 느끼신 점을 간략하게 쓰시고, 공동으로 의견을 모아 서대문구에서 어떤 정책으로 이어갈 것인가를 도출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재난 대비 체험교육을 정책으로 발전시킨다면, 장애인에 대한 것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팀 보고서는 좀 사진이 너무 많아서 사진을 줄이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의견 조금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까지도 어느 정도가 들 것인지까지도 나중에 좀 들어가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 위원) 느낌이나 소감 중심으로 보고서가 작성됐는데 어차피 이것을 이제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쯤에 우리 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어서 서대문구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구체화해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화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나기정 마을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이들이 적어서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는 상황인데 0세에서 3세까지 더 어린아이들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이제 이런 것을 좀 더 유연하게, 그런 경우에는 고학년 반을 좀 인원을 줄이고 어린아이들 반의 정원을 늘여서 수용할 수 있게끔 유연성도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겁니다. 공무국외연수 경험을 살려 의원들이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떻게 정책으로 발전시켰는지 한번 모니터링 차원에서 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2 위원) 재해 대비에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어요.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 수업이 생기긴 했지만, 홍수 대비 공무원 배치라든지, 상황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적거든요. 저도 일본에 가보니까, 태풍이 온다고 하면 사고 나기 전에 예를 들면, 동사무소 직원이 자전거에 후레쉬를 달고 우비도 입고 완전 무장해서 순찰을 도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사고가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사전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누가 나올 것인지? 지역을 잘 아는 기술직 공무원이 나올지? 민간인이 나올지? 자원봉사자가 나올지? 순찰 훈련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안전 체험훈련장도 서대문구와 인근 지자체가 몇 군데 같이 합쳐서 만들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이○○ 위원) 항상 열심히 하시고, 또 내용도 이렇게 잘 정리하셨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서 제가 미시적인 접근과 거시적인 접근을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프랑스의 인구 그래프는 종 형태로 되어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큰일났다. 그런 걸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여기 서대문구에 외국인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을 수용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민정책을 엄청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번에는 이스라엘 같은 데를 좀 가셔서 그런 것 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젝트 간의 연결이요. 일본을 갔으니 일본의 여러 스팟이 어떻게 연결돼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질 건가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유럽 막스글란 재활용센터 사례와 일본의 카미카츠를 연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발표에서 막스글란 재활용센터는 규모가 너무 커서 따라 하기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카미카츠는 일본 특유의 축소 지향적인 면이 있어서 두 개를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시스템 운영이 중간에 끊긴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운영을 계속해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뭐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3 위원)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갔다 오신 소감이요. 일본 사람한테 뭘 배워야겠다 아님 배우지 말아야겠다 그런 걸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주○○ 의원) 다른 의원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던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완벽주의자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도 절대 고장 안 나게 만들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뒤쳐진 이유가 또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스마트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은 바꾸게끔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하나를 10년을 쓸 정도의 그런 완벽한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방재 공원에 갔을 때도 일본 사람들의 완벽성에 놀랐습니다. 지하 저수지의 균열을 관리하는 면에서도 이런 것들을 봤었고요. 특히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도 더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3 위원) 이동 거리가 만만치 않았어요. 엄청 피곤했을 텐데 공식 방문지 말고 중간중간에 들린 곳이 없어요. 저는 관광지에 들어서 견문을 넓힐 필요는 없습니까?

(주○○ 의원) 오사카에서 밥 먹으러 간 식당에 변화가 안에 있어서 무슨 변화가 한 군데 갔었어. 거기다 워낙 관광객들 많이 오는 곳이라요. 지나가면서 한국인도 많이 봤습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없었고요. 도쿄에서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변화가 지나가고 골목길 돌아다니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3 위원)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도쿄 타워도 가보지 않고 너무 아까워요. 고생했어요.

(김○○1 위원) 제가 문화예술을 하고 있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경선 의원님이 착안점에 장애인 예술을 위한 공간 마련에 관해 기술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간을 마련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만, 어렵다면 기존에 있는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빌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지역에 있으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로에 장애인 이음센터에 가서 연습 공간을 빌리거든요. 거기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이번에는 바로 앞에 있는 홍제6동 주민자치센터에 부탁드려서 많은 날짜는 아니지만, 거기서 연습하거든요. 이런 것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출장 결과 보고서가 유럽팀과 일본팀이 형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왕이면 형식을 통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렵게 일본 갔는데 좀 둘러보고 오셔야죠. 시간을 들여서 도시 자체를 둘러보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주○○ 의원) 네. 사실 직업병이 있잖아요. 저희 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행정이나 이런 교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본에는 확실히 저상버스가 엄청 다 돼 있더라고요. 또 서울 도심과 비슷하게 인구 집중도가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많더라고요.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하고 살펴봤어요. 심지어는 일본에서는 주차장 공간이 없으면 차를 사지도 못 하게 하는 규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탄소 중립에도 중요한 축이 되는데, 우리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곳들을 가보진 못했지만, 다들 잘 갔다 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위원장) 주차 요금이 10분당 5,000원이더라고요. 차를 가져올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차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튼 뭐 잘 무탈하게 갔다 오셔서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본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심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관계로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